

'익산쌀 소비촉진운동' 전개

관외·수도권 홍보 판촉 전개… 농협성남유통센터 등 판촉

익산시는 쌀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 대내적인 익산 쌀 팔아주기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2021년산 익산쌀 재고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적정 쌀값을 유지하고 수확기 수매공간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익산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지난해 익산시 전체 쌀 생산량은 11만t이며 이중 58%를 공공영역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 4만9,980톤 중 2만8,800톤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에 비해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 전년 재고량에 비해 88.9% 높은 상황인데다 쌀값마저 8월 현재 4만3,093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가



하락했다.

이에 시는 효율적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공무원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1가정 1포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관내 공공기관, 단체로 텔레비전 촬영과 함께 쌀 소비를 위한 지역 내 홍보활동 등을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

한 결과 1차적으로 1,076포(10톤) 2천 9백 민원 상당이 판매됐다. 향후 익산시 교육청, 익산세무서 등 관내 공공 기관 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익산시지부와 14개 지역 농축협, 농민단체에서는 쌀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관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8일 익산시 나눔나눔에 2천 민원 상당의 익산쌀(10kg) 840포를 기부했다.

익산시는 공격적인 수도권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18일부터 21까지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는 익산 탐미루조합법인 및 농협 익산시지부, 지역농협, 농업인 등이 익산 탐미루 쌀 등 농산물을 홍보 판매한다.

또한 시는 농협 익산시지부와 함께 이달 30일 까지 익산역, 관내 초중고교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건전한 쌀 소비를 위한 지역 내 홍보활동 등을 확대한다.

/익산=이재준기자



군산시의회가 재난 안전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수립

군산시의회, 재난대비 안전강화 위한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재난 안전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간담회에는 김영일 의장과 비롯해 17명의 시의원, 황철호 부시장, 행정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하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시의회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재난 대응태세를 더욱 견고히 갖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상호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리에 마련했다.

먼저 시의회는 관련 부서로부터 지난 8월 11과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과 비상근무 실시 및 피해복구

추진 현황, 침수피해 조치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의원들은 "정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상습침수 지역은 물 난리로 물이 빠지지 못해 역류하면서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

이 불안에 떠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미리 점검함은 물론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저류조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및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살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 내 상습침수 구역과 호우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예찰 활동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고 오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읍·면·동주민센터와 시민들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수량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매뉴얼 정비와 침수지역 상기에 차수벽 설치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난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청년들 '건강한 금융생활' 교육 실시

익산시가 청년들의 생활 속 금융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확대한다.

시는 익산청년센터 청솔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교육이 아닌 기초부터 단계별로 알기 쉽도록 진행하는 '금린이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교육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번 금융교육은 총 4회로 운영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생활 속 돈 관리 습관부터 인생 전반에 필요한 금융 지식과 경제미인드를 키워준다.

첫 강좌는 가계부 쓰기부터 재무계획 수립까지 알려주는 내 지갑 워크숍 주제로 다음달 5일 열린다. 2강은

금융회사 미끼당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저축하는 역량을 기르는 '돈도 없는 무슨 저축'이라는 내용으로 다음달 6일 진행된다.

또한 신용에 대한 이해 및 신용점수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신용, A부터 Z까지', 건강하게 대출받고 금융피해도 줄일 수 있는 '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이 각각 다음달 15, 16일 마련돼 있다.

교육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이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익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달 23일까지 모집 중이며 각 특강마다 개별 신청한다.

/군산=이재준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창의학교 운영

군산시가 치매안심마을 주민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치매안심창의학교를 운영한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2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가 자주 접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매 예방실천 강화 및 조기발견 등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기구는데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공공건축 민간 전문가와 품격도시 조성

익산시가 공공건축사업에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품격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18일 모현도서관에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와 총괄건축가가 공공 발주사업 공무원과 익산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알리고 건축기획 업무 등에 관한 실무 안내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이는 건축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 분야 기획, 설계에 대한 조언 등 공공건축 사업의 자문활동에 참여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디자인 향상을 이끄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총괄건축 가로 윤종열 교수(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하였고 3명의 공공건축가를 주축으로 다수의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 및 지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 백서 제작을 위한 협장 조인식도 시작했다.

/군산=이재준기자

익산시, 지역 대표색채와 그래픽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가져

익산시가 시 고유 색채와 상징그림을 개발해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 조성한 '금강도서관 시범운영 마치고 개관식 개최'

강임준 군산시장·시민 등 100여명 참석…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함께 열려

군산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금강도서관이 42일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8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도의원, 군산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경과보고와 건립 유공자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시설라운딩, 테이프커팅식,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와 함께 열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강도서관은

독서중심의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관 이후부터 운영시간은 하~일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휴관한다.

군산시 도서관 관계자는 금강도서관이 뉴노멀시대 지역사회 교육문화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454-5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지역 대표색채와 그래픽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가져

익산시가 시 고유 색채와 상징그림을 개발해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 조성한 '금강도서관 시범운영 마치고 개관식 개최'

강임준 군산시장·시민 등 100여명 참석…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함께 열려

군산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금강도서관이 42일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8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경과보고와 건립 유공자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시설라운딩, 테이프커팅식,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와 함께 열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강도서관은

독서중심의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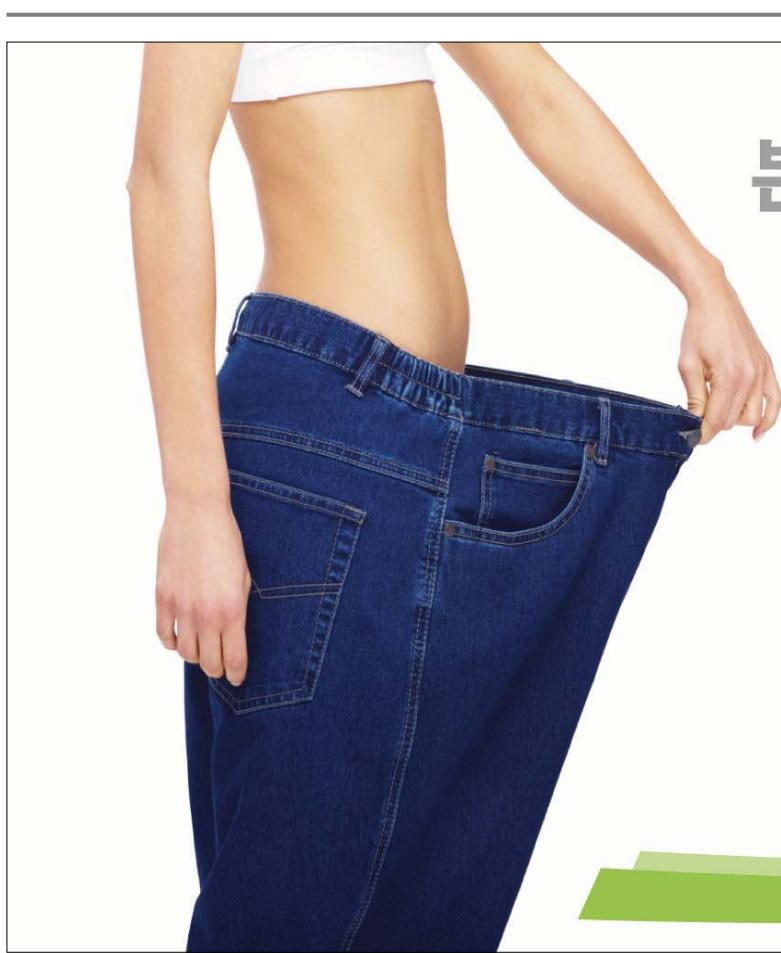
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익산 홍보 공간으로 조성했다.

앞으로 익산색을 홍보하고 익산시 경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익산색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징적인 장면을 담은 아이콘을 개발, 익산색과 함께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 등 도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립하였다.

시 관계자는 "익산민의 독창적인 도시색채 개발 및 색채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정체성을 높이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